
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 50대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

#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하자
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위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50~59세 검진자는 40,786명으로 남성은 23,281명, 여성은 17,505명이다.

그중 심전도 검사를 받은 50대 검진자 40,587명 중 14.6%가 질환의심을 보였고, 혈압 측정을 한 40,742명 중 11.6%가 수축기 혈압에서, 10.9%가 이완기 혈압에서 질환의심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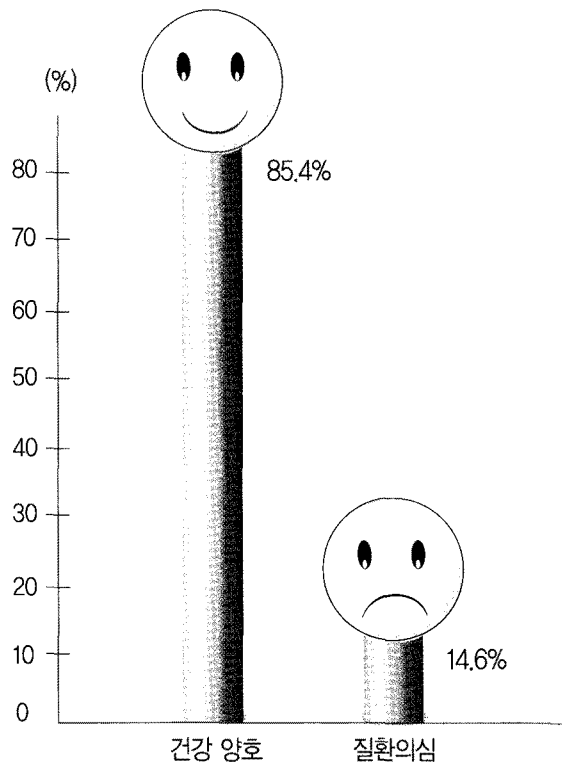
## 50대 14.6%의 심장은 고통스럽다

심장의 근육세포는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수축할 때마다 미량의 활동 전류를 일으킨다. 이 활동 전류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심전도 검사이다.

심전도 검사 유소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심전도 검사를 받은 50대 직장인 40,587명 중 14.6%(5,935명)에서 질환의심이 나타났으며, 건강 양호는 85.4%였다.

남성의 경우 검사자 23,159명 중 16.0%(3,710명)가 질환의심으로 나타났으며, 건강 양호는 84.0%(19,449명)였다.

또한, 여성은 17,428명 중 12.8%(2,225명)에서 질환의심을 보였으며 건강 양호는 87.2%(15,203명)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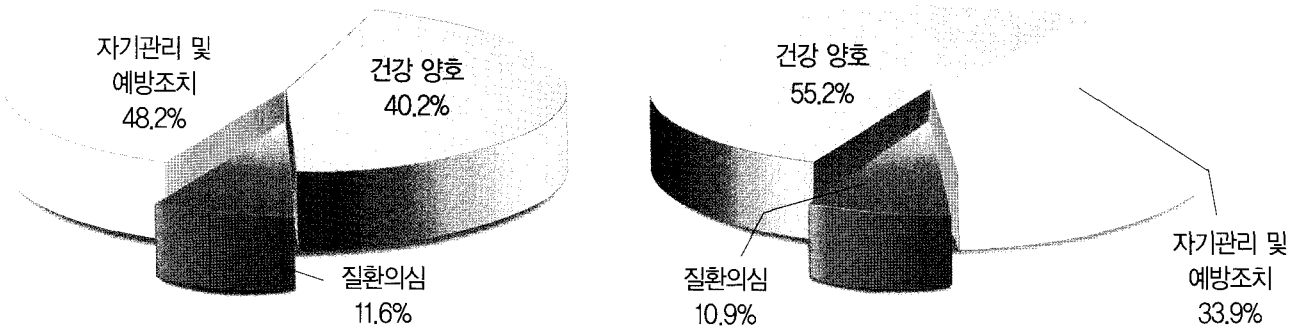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증진위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은 50대 근로자 검진 결과

50대의 59.8%는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

혈압 검사를 받은 50대 직장인은 40,742명으로 수축기 혈압 측정에서는 59.8%(24,341명)가, 이완기 혈압 측정에서는 44.8%(18,245명)가 질환의심이거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자기 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.

수축기 혈압 측정 결과 40.2%(16,401명)는 건강 양호를 보였고, 48.2%(19,627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, 자기관리 및 예방이 필요했다. 나머지 11.6%(4,714명)는 혈압에 따른 질병이 의심됐다.

또한, 이완기 혈압 측정 결과 55.2%(22,497명)는 건강 양호를 보였고, 33.9%(13,801명)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, 자기관리 및 예방이 필요했다. 나머지 10.9%(4,444명)는 혈압에 따른 질병이 의심됐다. **MEDI**CHECK



2008년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건강증진의원에서 혈압 측정을 한 50대 근로자의 수축기 혈압(좌) 이완기 혈압(우) 검진 결과

심전도 검사와  
혈압측정으로  
알 수 있는 질병



심전도 검사로 심장의 활동, 질환의 유무와 그 종류를 간단히 알 수 있다. 심장 리듬의 이상이 일어나는 부정맥이나 협심증,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.

혈압 측정은 뇌졸중, 심장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중요한 검사로 고혈압, 동맥경화증, 협심증 등을 의심할 수 있다. 수축기 혈압의 정상치는 120mmHg 미만이고 이완기 혈압의 정상치는 80mmHg 미만이다.